

이봉창 의거에 대한 국외 한인사회의 반향

황 선 익*

국문초록

1932년 이봉창 의거는 일본 제국주의의 폭주에 경종을 울린 일대 사건이다. 제국주의 심장인 도쿄(東京)에서 일왕(天皇)을 대상으로 했던 만큼 국제적으로도 크게 주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만큼 충격적인 ‘大逆事件’이었다.

이봉창 의거가 일어날 무렵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대부터 이어진 내부적 분열로 침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하이 교민사회와 미주 한인 사회의 계속된 지원은 임시정부의 의열 투쟁에 활기를 불어일으켰고, 결국 이봉창 의거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한편 미주 한인사회는 내부적 혼란과 경제적 상황 등으로 혼란스런 시기를 보내며 장인환과 안중근의 뒤를 잇는 새로운 義烈士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이봉창 의거는 독립운동에 대한 미주 한인의 갈증을 풀어주었다. 뒤이어 윤봉길 의거가 일어남으로써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는 물론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피어오르게 하였다.

1932년 10월 이봉창 의사가 순국하자, 임시정부 인사들은 물론 멀리 미주에까지 추모 분위기가 번져갔다. 두 달 후 윤봉길 의사가 순국한 후, 이봉창 의사의 추도회는 대체로 이·윤 두 의사에 대한 공동추도회로 개최되었다.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미주 동포들을 한데 모으고,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다지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1930년대 의열 투쟁의 서막을 연 이봉창 의거는 해외 한인사회와의 호흡 속에서 이뤄지고, 또한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한국독립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이 되었다.

[주제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애국단, 대한인 국민회, 장인환, 윤봉길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연해주·중국 한인사회의 반향 |
| II. 일제의 대응과 재일 한인 탄압 | V. 맺음말 |
| III. 미주 한인사회의 추모와 임시정부 지원 | |

*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부교수 / sunhomme@kookmin.ac.kr

I. 머리말

1932년 이봉창 의거는 일본 제국주의의 폭주에 경종을 울린 일대 사건이었다. 제국주의 심장인 도쿄(東京)에서 일왕(天皇)을 대상으로 한 ‘大逆事件’이었기에 그 파장은 컸다. 일본 내각은 이로 인해 총사퇴해야 했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크게 주시하였다.¹⁾ 의거 이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윤봉길 의거까지 일어나자 일제는 대대적인 검거 열풍을 일으켰다. 이에 김구는 「東京炸案의 眞狀」을 발표함으로써 의거의 전모를 세상에 알렸다.

이봉창 의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그 자체보다도 한민애국단의 조직적 의열 투쟁에 집중되었다. 이봉창에 대한 저작 중 전기류 외 대부분의 연구는 한민애국단과 그에 부속된 의거로써 이봉창 의거를 다루었다.²⁾ 1990년대 말 이봉창 의사에 대한 학술 연구가 발표되었지만,³⁾ 의거와 이후 재판 과정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속에서 여러 오류를 보이기도 했다.⁴⁾ 이봉창 의거의 전모가 채 밝혀지지 않고, 여러 오해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1994년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의 재판 기록 발굴과 국내 후속 연구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요컨대 이봉창 연구에 있어 ‘재판 기록’의 발굴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이봉창 의거와 한민애국단의 의열 활동에 대해서는 의거 전개의 과정과 재판의 경과,⁵⁾ 중국 측 보도 실태⁶⁾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일제 신문 조서와 재판 기록의 수집으로 이봉창에 대한 면모와 한민애국단의 활동이 재조명되었으며, 중국 측 보도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⁷⁾ 이렇게 확장된 연구 인식과 섭렵된 자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임시정

1) 이봉창 의거는 입장이나 사실을 알리는 주체에 따라 그 명칭에도 차이가 있었다. 중국의 경우 초기 보도에서부터 ‘日王(皇)狙擊’이라 칭했고, 의거를 주도한 김구는 직접 ‘東京炸案’이라 명명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천황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대역사건’으로 구분했지만, 일반적으로 ‘사쿠라다문 밖(櫻田門外) 사건’이라 칭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에서는 경시청 앞에서의 일어난 사건이므로 ‘경시청 앞 사건’으로 불러야 마땅했으나 경찰 측 입장에서 호도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봉창 의거가 일왕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사건 현장으로부터 사쿠라다문 및 경시청 간의 거리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측에서 ‘사쿠라다문 밖(櫻田門外) 사건’이라 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수 있다. 접근 시각에 따라 달리 불리기도 했던 이봉창 의거에 대한 ‘사건 인식’과 ‘의거 규정’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2) 조동길, 「한민애국단의 의거」, 『독립운동사』 7권(의열투쟁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김창수, 「韓人愛國團의 성립과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이연복, 「韓人愛國團과 기타 義烈鬪爭」, 『한민족독립운동사』 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88; 신용하, 「白凡 金九와 韓人愛國團의 特攻作戰」, 『우송조동길교수정년기념논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II, 나남출판, 1997 등.

3) 이현희, 『李奉昌의사의 항일투쟁』, 국학자료원, 1997.

4) 공판의 횡수부터 의거의 대상과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에서 여러 오류가 있었음이 최근 연구에서 다시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이현희 등 선행 연구의 오류에 대해서는 박성순, 「이봉창 의사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이봉창 의거의 기반과 영향』 학술회의 발표문(백범기념관, 2022.10.12.) 참조.

5) 장석홍, 『진실과 왜곡』,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2006, 126~127쪽.

6) 한시준,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근현대사연구』 36, 2006.3.

7) 신문·재판기록은 2004년 영인·번역되었고(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이봉창의사 재판관련 자료집』, 단국대출판부, 2004), 이를 전후하여 공동 저작물이 발표되었다. 이봉창의사장학회, 『이봉창 의사와 한국독립운동』,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2;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진실과 왜곡』, 2006. 이 외 개별적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李炫熙, 「李奉昌 의사의 항일 투쟁」, 『국학자료원』, 1997; 韓詩俊, 「李奉昌 義士의 日王狙擊義舉」, 『한국근현대사연구』 1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김창수, 「韓人愛國團과 李奉昌義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김도형, 『일왕을 겨누는 독립투사 이봉창 의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배경식, 『식민지청년 이봉창의 고백』, 휴머니스트, 2015 등.

부 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8)에 한인에국단편이 별도로 구성되기도 했다.⁸⁾

이봉창 의거가 일어날 무렵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위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임시정부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상해 교민사회와 미주 한인사회의 계속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주 한인들은 임시정부에 희망을 걸고 재정적 지원을 이어 가고 있었다. 이에 김구는 ‘유일하게 기댈 곳이 미주 동포’라 할 만큼 임시정부에 있어 미주 한인 사회는 절대적 기반으로 여겼다.

1930년 전후 미주 한인사회는 내부적으로는 단체간 갈등과 경제적 곤란 등으로 혼란스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 10월 장인환 의사가 서거하자 미주 한인사회는 다시 한 번 천지를 진동할 ‘의사’의 등장을 고대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새로운 義烈士를 기대하던 미주 한인사회에 이봉창 의거는 독립운동에 대한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뒤를 이어 윤봉길 의거가 일어났으로써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는 물론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피어오르게 하였다.

이제까지 이봉창 의거 연구는 한인에국단 활동의 일환으로 다루지거나, 윤봉길 의거에 비해 소략하거나 묶여서 논의되는 경향이 짙었다. 아울러 의거의 전개와 공판 전개에 집중된 나머지 이후 의거의 파장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봉창 의거가 일으킨 반향을 국외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봉창 의거가 실제 한인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이것이 임시정부 활동에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일제의 대응과 재일한인 탄압

이봉창은 1931년 12월 17일 일본 우편선 고리가와호(氷川丸)에 승선하여 19일 밤 고베(神戸)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오사카(大阪) 미나토구(港區) 야쿠모쵸(八雲町)에 머물다가 12월 22일 오사카를 떠나 도쿄로 향했다. 우에노(上野)역을 거쳐 아사쿠사구(淺草區) 마쓰기요쵸(松清町), 시타가야구(下谷區) 시모쿠루마자카쵸(下車坂町) 등에 머물던 그는 의거 직전인 1월 7일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가와사키시(川崎市)의 다마키루(玉木樓) 유곽에 묵었다. 그리고 다음 날 1월 8일 아침 도쿄 남쪽 시나가와(品川)를 거쳐 하라주쿠(原宿), 요쓰야 미쓰케(四谷見附), 아카사카 미쓰케(赤坂見附)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도쿄 警視廳 부근에서 내린 후, 일왕 행렬이 나타나자 투탄 의거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를 형법 제73조에 규정된 ‘황실에 대한 범죄’(大逆罪)로 규정하고, 大審院에 예심을 청구했다.¹⁰⁾

8) 해당 편은 3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에 대한 국내의 언론보도와 재판기록 등이 주요 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9) 특히 하와이 한인사회는 1929~1933년간 교민단-동지회간 갈등과 세대간 갈등이 중첩되어 ‘교민총단관 점령사건’이 벌어져 심각한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김도형, 「1930년대 초반 하와이 한인사회」, 『미주 한인사회의 한국독립운동』, 역사공간, 20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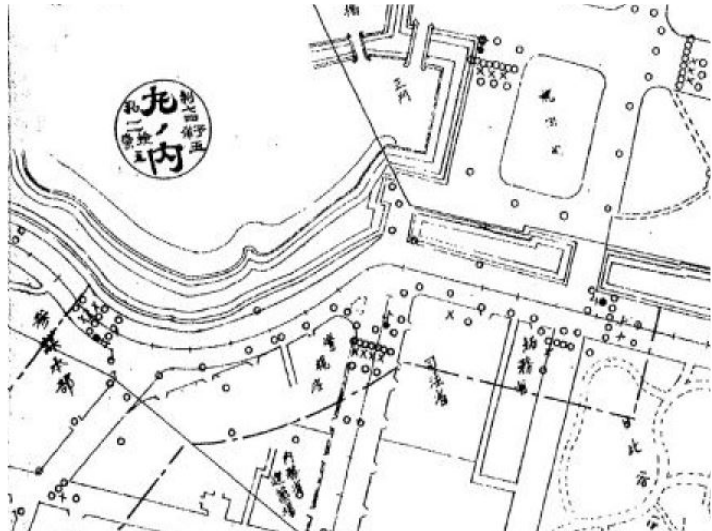
10)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던 이봉창 의사는 9월 사형 선고를 받고, 10월 10일 도쿄 이찌가야(市谷)형무소에서 사형 집행당해 순국하였다.

의거 직후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는 고베-오사카-도쿄 시내-가와사키를 거치는 동안 그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일왕 열병식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또한 의거의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시청 고위 간부들은 징계를 받거나 스스로 사직해야 했다.

일본 정부는 1월 9일 상해 총영사를 통해 상해 주재 프랑스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의 체포 등을 요청했다. 한편으로 일본 정부는 이봉창 의거 직후 경찰력을 강화하며 비상조치를 취해갔다. 같은 날 인천경찰서는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야간 특별 계엄을 실시했으며,¹¹⁾ 2월에는 한인들이 모여 사는 일본 각 도시에 조선총독부 경찰관을 파견했다. 그리고 경찰력 증강을 위한 전령이 실시되었다. 신규 경찰 병력은 한인들이 왕래하는 중요 항구와 밀집 거주 도시 등에 배치되었다. 이에 대해 국내 신문은 “이로써 東亞 전반에 총독부 경찰망이 퍼지는 셈”이 된다고 평했다.¹²⁾ 재판이 종결되던 1932년 9월 일본 정부는 이봉창이 거쳐 간 3개 현(효고현, 오사카부, 가나가와현)의 지사를 견책했다.¹³⁾



〈사쿠라다문과 경시청〉¹⁴⁾



〈1932년 당시 사쿠라다문-경시청〉¹⁵⁾

〈그림 1〉 사쿠라다문과 경시청 일대 모습 및 약도

일본 본토와 조선에서 경비망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애국단의 의열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거가 일어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빌미 삼으며, 상하

11) 「不祥事件で仁川署緊張 特別警戒開始」, 『朝鮮新聞』, 1932년 1월 10일자.

12) 「日本各都市に 朝鮮警官配置」, 『동아일보』, 1932년 2월 16일자.

13) 「이봉창사건 3지사 譴責」, 『동아일보』, 1932년 9월 15일자. 1932년 9월 15일 이봉창 사건의 책임을 물어 효고현지사, 전 오사카지사(당시 교토현지사), 전 가나가와현지사(당시 아이찌현지사)를 견책했다.

14) 독립기념관 소장자료(3-013328-026)

15) 「昭和七年一月八日内閣発表李奉昌大逆事件」, 《内務省警保局種村氏警察參考資料》 第16集, 平9警察00701100, 일본 국립공문서관.

이지역 특고경찰을 확충했다. 소위 영사 경찰을 통해 위세를 떨치던 일제는 상해 총영사관 산하 경찰서를 경찰부로 승격시켰다. 내무성은 초대 경찰부장으로 내무성 서기관 급의 인물을 임명하고 그 밑에는 부영사를 여러 명 두어 종래의 고등경찰 사무를 확장했다. 또한 보통과 특고로 나누어 ‘조선인 경찰’ 배치에 주력했다. 특히 부영사 1인은 “조선인 관계에 능통하고 조선어도 잘하는 경시급의 인물”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상해에서의 독립운동과 비밀 활동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¹⁶⁾

1932년 이봉창·윤봉길 의거 후 상해 지역 등에서 경찰력을 증원한 일제는 국내에서도 경찰력을 강화하였다. 3·1운동 직후 ‘대증원’ 되었던 경찰의 인원과 예산은 1920년대 큰 증감 없이 유지되다가 1930년부터 ‘경비 절감’ 차원에서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양 의거가 일어나자 일본 정부는 항만 감시 경찰의 증원과 국경 경비 충실을 목적으로 약 80만원의 경찰 예산 증액을 추진했다.¹⁷⁾

일본 측은 이봉창 의거 이후 상하이 지역 동향을 예의 주시하였다. 상하이 일본총영사관은 10월 15일 ‘이봉창의사 추도식’이 열렸음을 알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후 동향을 파악하여 본국에 보고하기도 하였다.¹⁸⁾

한편 1933년 1월 8일 일왕의 육군 ‘親臨觀兵式’을 앞두고 일제는 이봉창 의거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대규모 검거 작전을 전개하였다. 일본 경시청은 “대불경사건을 일으킨 이봉창의 연루 관계자들이 8일의 관병식을 이용하여 어떤 큰 불온 계획을 행하고자 하는 음모를 탐지”했다며 연초부터 검거 활동에 들어갔고, 11일에는 ‘전국대회 준비위원회’를 개최 중인 朴盛祥(29) 외 14인을 체포하였다. 박성상 등을 체포한 일본 경찰은 이들이 “오사카, 나고야, 도쿄 각 대표들에게 위협사상을 퍼트렸다”고 지목했다.¹⁹⁾ 신문 또한 이들이 모두 ‘적화운동을 하던 이들’이었다고만 보도했다.²⁰⁾ 이때의 소위 불온 계획이 이봉창 의거 1주년을 기념한 활동인지 사회주의 활동의 일환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봉창 의거를 기념한 활동 여부를 떠나 일본 경찰이 이봉창 의거를 빌미삼아 재일한인에 대한 검거 열풍을 일으켰다는 것이다.²¹⁾

이봉창 의거가 광복 이전까지 재일 한인사회에 어떠한 반향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다만 전시체제의 정점으로 치닫고, 사상통제가 극심해지던 상황에서 이봉창에 대한 추모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실제 이봉창 유해의 수습도 1946년이 되어서야 이뤄질 수 있었다.

16) 「朝鮮人取締을 徹底히 할 方針」, 『조선일보』, 1932년 12월 9일자. ‘조선인 관계에 능통’한 부영사를 특별히 지목한 것은 한인 사회의 분열과 전향을 획책하기 위한 특무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17) 식민지 조선내 경찰예산은 1919년 3배 증액되어 2,394만원으로 절정에 올랐고, 이후 큰 증감 없이 내려오다가 1931년 77만원 감액되어 2,010여 만원이 책정되었다. 1932년에는 1,937만 7천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양 의거로 경찰 예산은 항만 감시경찰 예산 49만원, 국경경비충실 비용 37만원 등이 증액되었다. 「今年警察費 膨脹 八十萬圓의 大增額」, 『동아일보』, 1932년 12월 7일자.

18) 『上海韓聞』 제16호(1932.10.17.)에 따르면, 10월 15일 오전 6시 프랑스 조계 愛多亞路의 모 사원에서 남녀 유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밀리에 열려 이 자리에서 동지들의 추도사로 이봉창을 선양하는 추도식이 열렸다. 『上海韓聞』 제16호 譯報에 관한 건,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8권.

19) 「赤化運動의 朝鮮人一委員 十五名을 檢舉」, 『조선일보』, 1933년 1월 13일자.

20) 『중앙일보』 1933년 1월 11일자; 『매일신보』 1933년 11월 13일자.

21) 사실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일본 경찰은 이들을 ‘이봉창 일파’로 규정하였다.

1945년 10월 27일 아키다(秋田)형무소에서 석방된 박열은 11월말 도쿄로 돌아온 후 1946년 1월 20일 ‘신조선건설동맹’ 위원장이 되었다. 항일운동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던 박열과 이강훈, 서상한 등은 우라와(浦和) 묘지에 있던 이봉창 의사의 유해와 이시하야 감옥 묘지에 있던 백정기 의사 유해를 모신 후 오기쿠보(荻窪)에 있는 건국촉진청년동맹 강당에 봉안해 놓았다. 이후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천신만고 끝에 찾은 후, 이들은 3의사 유해를 앞세우고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사꾸라다문 안으로 들어가 이봉창 의사를 기리는 연설을 하고 애국가 제창을 하며 ‘일본 왕이 있는 대궐 안이 떠들썩하도록 만세삼창까지 불렀다’고 한다.²²⁾ 그런 후 유해의 조국 봉환이 이뤄졌다. 이봉창 의사의 유해를 수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재일 한인사회는 건국동맹과 재일조선인연맹의 반목, 조련의 해산 등으로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광복 후 독립운동을 계승하기 위한 구심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 당국과 GHQ(연합군총사령부)로 인한 핍박에 대한 저항의식을 통해 민족사회의 정체성을 정립해갔다.

Ⅲ. 미주 한인사회의 반향과 임시정부 지원

이봉창 의거가 일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미주 동포들의 재정적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김구는 백범일지에 서 이봉창과 만난 지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하와이에서 명목을 정한 몇 백 달러의 미화를 상해에 보내왔다”고 밝혔다.²³⁾ 그러면서도 하와이 안창호·임성우 등 제씨 편지로 묻기를 “당신이 정부를 지키고 있는 것은 감사하나, 당신 생각에 무슨 사업을 해야 우리 민족에 큰 생색될 것을 하고 싶은데 거기 쓸 금전이 문제된다면 주선하겠다”²⁴⁾고 전해왔음을 밝히며 미주 한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미주 한인사회는 1930년 5월 22일 장인환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의열 투쟁을 돌아보게 되었다. 홍언은 “장(장인환) 공은 수천 년 자객의 역사의 책장을 찢고 일어나서 경천동지하는 사업을 성공한 산하천고에 제1인”으로 “안중근 전에 있는 첫 의인이었다”고 평했다. 장인환의 장례식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스타턴, 다뉴바, 리들리, 로스앤젤레스 지방 대표 등의 참석하에 사회장으로 치러졌다.²⁵⁾ 장례식 이후에도 장인환 의사에 대한 추도회는 이어졌다. 6월 4일 리들리, 6월 8일 델라노·베이커스필드, 6월 15일에는 뉴욕

22)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제3기획, 1994, 208쪽.

23) 김구, 도진순 탈초·교감, 『정본 백범일지』, 2016, 397쪽. 또한 그는 “임시정부가 해외에 있느니만큼 해외 교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東三省이 第1位로 250만여 명이 있으나 本國 식민지와 같이 되었고, 俄領이 第2位로 150만 여 명이나 공산 국가라 민족운동을 금지하니 그 곳 동포들에게 의뢰키 不能하고, 第3位 일본에 45만 명이 거주하나 의뢰할 것 없고, 美·墨(멕시코)·쿠쿠바에 第4位로 만여 명인데 그들 대다수가 노동자나 애국심이 極富한 것은 그곳에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 안창호, 박용만 등의 訓陶를 받았음으로, …(중략)… 그 곳 동포들에게 사정을 통하여 정부에 獻誠케 할 계획을 정하였으나, 미국·하와이·멕시코·쿠바 동포들이 이같은 애국심으로 어찌하여 정부의 獻誠이 疏忽하였든가. 다름 아니라 정부에서 1년에도 몇 번씩 각원이 변경되고 헌법도 자주 변경되는데 따라 정부 위신이 떨어진 원인이고, 또는 정부 사정을 자주 알게도 하지 않아서 동포들이 정부를 불신임하였든 것이다.”라며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 신뢰와 나름의 부채의식을 보이기도 했다.

24) 김구, 도진순 탈초·교감, 앞의 책, 397쪽.

25) 『신한민보』, 1930년 5월 29일자.

에서 한인교회 등을 중심으로 추도회가 열렸다.²⁶⁾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6월 15일, 멕시코 탐피코에서는 6월 8일, 쿠바 마탄사스에서는 7월 10일, 멕시코 메리다에서는 7월 24일 추도회가 열렸다. 장인환 의사의 죽음으로 미주 한인사회가 다시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다지는 가운데 1932년 이봉창 의거가 일어났다. 의거 소식과 이봉창 의사의 상황에 대한 소식은 속속 미주 한인사회에 전파되었다.²⁷⁾

1932년 3·1절 기념식을 맞이하면서 미주 한인들은 한인에국단과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김도연은 “우리 민족의 전체 의사를 반영하여 총역량을 집중한 대표적 단체를 조직하여 대중 훈련과 혁명 사상을 고취하는 외에 지도 이론을 확인한 후 임시정부를 적극적 지지 성원하여 우리의 광복운동을 촉진하자”고 열변하였고, 뉴욕 동포들은 ‘혁명지사 이봉창과 같은 혁명군 양성 자금에 조달하자’며 현금하여 임시정부로 전달하기로 결의하였다.²⁸⁾ 1932년 3·1절은 이전보다 훨씬 뜨거운 호응 속에서 치러졌다.

10월 이봉창 의사의 순국 소식이 미주에도 전해졌다. 이에 국민회 지방회별로 추도의 성원이 모여졌다. 10월 16일 국민회 샌프란시스코 지방회(회장 양주은) 주최로 열린 이봉창 의사 추도회에서 흥언은 다음과 같이 추도사를 읊었다.²⁹⁾

대개 암살은 진실로 인도에 용납지 않는 것이요. 또한 법률이 허락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열사·의사가 어찌 이를 쫓아서 행하라. 당초에 왜놈이 우리의 제후(帝后)를 암살하고 또 우리 동포들을 명살하여 우리 민족을 못 살게 함으로써 우리의 열사·의사가 부득이 왜놈과 같은 수단을 취하여 그 흉포(凶暴)를 징벌함이니 이는 천리보응이 본래 그런 것이다. 만일 왜놈은 강한 자니 넉넉히 암살 횡행할 수 있고 한인은 약자라 원수를 갚는 것도 불가하다면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인도와 법률이 있으랴!

흥언의 추도사를 듣고 이봉창 의사의 의생적 순국 대의를 공유하며 목상이 이뤄졌다. 이후 김동우는 우리 민족 망국 역사상 가장 저명한 열사, 의사로 “스티븐스를 격퇴한 장인환, 이등박문을 격살한 안중근, 이완용을 저격한 강우규, 다나기를 저격한 김익상, 니주바시에 투척한 김지섭, 금호문에 사격한 송학선, 구니노미야 구니요시를 습격한 조명하, 홍구 공원을 폭파한 윤봉길 등”을 들며, 특히 “일황을 저격한 이봉창 의사는 과연 그 담대한 용감력과 그 신기한 기개와 그 희생적 정신은 천추만대에 남으리라” 추도하였다.³⁰⁾

1932년 10월 20일 국민회 총회에서 지방회별로 이봉창 의사 추도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북미지역 지방회별로 추도회가 열렸다.³¹⁾ 10월 23일 로스엔젤레스 지방회(회장 최능익)에서 추도회가 개최되었으며,³²⁾ 10월 27일에는 중가주 대한인공동회가 리들리한인교회에서 김정진 주도로 추도회를 열고 의연금을 모금하였다.³³⁾ 1932년 말까지 북미지역에서 개최된 이봉창 의사 추도회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 『신한민보』, 1930년 6월 19일자.

27) 신한민보 등을 통해서 이봉창 의거의 개요(1932.1.14., 1.28)와 그의 略史(2.11)가 상세히 미주에 전달되었다.

28) 「뉴욕동포의 三一절 성향- 획시기적 신사업 전국적 성원요망」, 『신한민보』, 1932년 3월 1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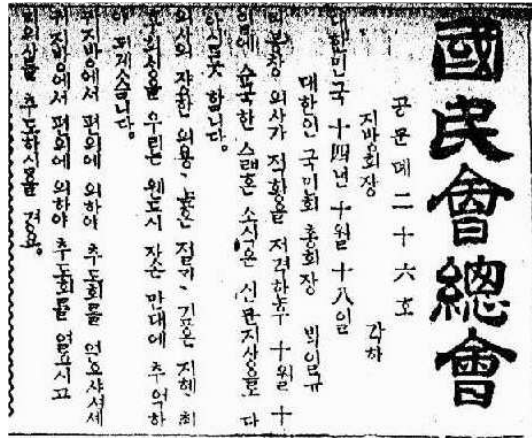
29) 「이봉창의사와 삼포의 전후공관에 의하여」, 『신한민보』, 1932년 10월 20일자.

30) 「이봉창의사 추도회」, 『신한민보』, 1932년 10월 20일자.

31) 「국민회 총회」, 『신한민보』, 1932년 10월 20일자.

32) 「이봉창의사 추도회」, 『신한민보』, 1932년 10월 27일자.

〈대한민국민회 총회의 이봉창 의사 추도회 개최 공문과 지방회별 개최 경과〉



* 북미 지방회별 추도회 경과

- 10월 23일 로스엔젤레스 지방회(회장 최능익)
- 10월 24일 목경(멕시코시티) 지방회(부회장 서삼여)
- 10월 27일 증가주(리들리) 대한인공동회
- 10월 31일 쿠바 마탄사스 지방회(회장 서문경)
- 11월 6일 멕시코 메리다 지방회(회장 유진태)
- 11월 13일 뉴욕 한인공동회
- 11월 14일 멕시코 칼데라 지방회(회장 강홍식)
- 11월 27일 멕시코 부엘도 지방회(회장 최윤)

지방회별로, 추도회별로 다양한 추도사가 있었는데, 그 중 마탄사스 지방회 양준명이 지은 추도사를 원문대로 소개한다.³⁴⁾

웬일이야 우리의사 리봉창을 처형하니
 남의 의사 처형한 놈 무도무법 너히로다
 너의 죄상 판결할 날 머지 안이 남앗도다
 이천만의 로한 기상 추상갓흔 호령하에
 하이하이 꼬박꼬박 항복할날 당도했다
 대역으로 취형하고 세계공법 무시하니
 거거익심 영토약육 잊지전별 업슬소냐

33) 「이봉창의사 추도회」, 『신한민보』, 1932년 11월 3일자. 김형순, 김경선, 박희성 등의 추도사가 있는 후 의연금을 모았는데 108원이 수합되었다. 증가주 동포들은 11월말에도 위로금을 모금하여 김형순 20원, 김호 5원 75전 등 총 160원을 모았다.

「이, 윤 양 의사 가족위급」, 『신한민보』 1932년 11월 24일자.

34) 「이봉창의사 추도사」, 『신한민보』 1932년 11월 10일자.

삼십삼현 선언서에 최후—각 최후—인
 이사명을 잊지말고 우리목적 자유독립
 어서 속히 차근후에
 너히 죄상 기록타가 붓이 떨어 못그리고
 대의로 이료노니 그를 씻고 드러보라
 순천하면 흥왕하고 억천하면 망함이라
 한중량국무죄인만 몇백만명 살했니
 무죄인민 살해죄로 십팔층이 예비했다
 여보시오 리의사여 당신직무 당 하나
 강약부동 할수업시 원수논의 사형선고
 이천만인 통곡하여 당신뒤를 따르리라
 대한민국기 높이달고 모든령사 슌흔령
 애국가도 찬양하고 만세무궁
 대한독립 영원토록 불너보세

1932년 12월 19일 윤봉길 의사가 순국한 후, 이봉창 의사의 추도회 등은 대체로 양 의사에 대한 공동추도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다.³⁵⁾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미주 동포들을 한데 모으고,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다지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봉창 의거는 임시정부 지원을 추진하고 있던 미주한인연합회에도 큰 힘이 되었다. 1931년 11월 ‘미주한인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임시정부를 받들어 우리 동맹군의 전투를 후원’하자고 결의하며 조직된 미주한인연합회는 “우리 임시정부의 작년 1년간 대사업은 실로 재미 한인의 원조를 힘입어 된 것이며, 이 앞에 계속 한동안에도 또한 재미 한인의 원조를 기다리오니 우리는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있어 더욱 성의를 가지고 후원을 계속 합시다”라며 임시정부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³⁶⁾ 비록 1933년 4월 김규식의 방미로 확산된 한국대일전선동맹 가입 기조로 대한인국민회 등이 연합회를 탈퇴하여 결국 해산되었지만,³⁷⁾ 임시정부 지원에 전환점을 이뤘다.

1930년대 임시정부 지원을 본격 추진하는 분위기는 하와이에서도 고조되었다. 1925년부터 ‘임시정부 후원회’ 활동을 하던 현순은 국민회, 동지회, 구미위원부 등과는 별개로 임시정부의 재정을 후원하였다. 1930년 3월 1일 가와도한인단합회를 조직을 주도한 현순은 카우아이 섬의 한인들을 결속하여 임시정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현순은 공식적으로는 1936년 임시정부 ‘하와이群島 宣諭委員’에 선임되었으며,³⁸⁾ “1934년 9월 임시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인구세’ 또는 ‘애국의연금’을 거출, 송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³⁹⁾ 실제로는 1932년부터

35) 대한인국민회는 12월 20일 총회에서 윤봉길 의사 추도회 개최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회별로 추도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봉창 의거가 일어난 1월부터 양 의사에 대한 합동추도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36) 『미주한인연합회』, 『신한민보』, 1933년 2월 23일자.

37) 홍선표, 『재미한인 독립운동을 이끈 항일 언론인 백일규』, 역사공간, 2018, 149쪽.

38)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61號』(1936.11.27),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권.

터 임시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인구세를 모금하고 있었다.⁴⁰⁾ 이후 현순은 1936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며 ‘인구세’를 징수하였다. 하와이에서 모금된 인구세는 늦어도 1936년 5월부터 임시정부 재무부에 전달되었다.⁴¹⁾

1933년 3월 10일 중국 국민당의 민간 사절단 대표 자격으로 도미한 김규식이 로스엔젤레스항에 도착했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미국 전역을 돌며 한인들을 만난 김규식은 이봉창, 윤봉길 양 의사의 일어나고 나서 중국인의 존경을 받고 있음을 상기시켰다.⁴²⁾

1933년 들어 북미에서 대한민국민회와 미주한인연합회가, 하와이에서 현순을 중심으로 하는 단합회 등이 활동하면서 임시정부 지원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멕시코시티에서도 총렬제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총렬제에서는 순국 선열의 신위와 영정, 그리고 찬양시 1편이 걸렸다.⁴³⁾

이봉창 의사
이 작호인 왜왕 앞에
봉 의 눈을 부릅뜨니
창 천벽해 인 즉,
의 리 없다 질책할 때
사 족 벌벌 떨었다네!

1934년 5월 1일에는 국민회 지방회에서 민영환, 최면암(익현), 박승환, 이준, 안중근, 이재명, 장인환, 이봉창, 윤봉길 등으로 이어지는 순국 선열에 대한 추도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의열투쟁에 대한 계승이 고조되는 가운데 임시정부와 한인애국단에 대한 지지도 보다 실제적으로 결집되기 시작하였다. ‘임시정부 후원회’를 조직하며 임시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던 하와이 교민들은 ‘애국당’ 혹은 ‘독립당’을 거쳐 1934년 4월 하와이 애국단을 결성하며 한국독립당 하와이지부의 토대를 만들어갔다.⁴⁴⁾ 임시정부에 복귀한 김구는 1936년 11월 제29차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美領’을 선거구로

39) 「현순 공훈록」, 공훈전자서관.

40) 미국 남가주대학(USC) 현순컬렉션, 1932년 인구세로 납자부 59인의 납세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41) 인구세 징수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1936년 발급된 영수증이 직접 확인된다(USC 도서관 및 독립기념관), 다만 당시 재무부장관이었던 송병조가 이미 현순 측과 소통하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송병조는 1933년 10월부터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26차 회의부터 ‘美領’ 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 281쪽).

42) 「한 중 양 민족의 중대사명 받은 김규식 박사를 열정으로 환영 중국인이 한인들을 더욱 친선」, 『신한민보』 1933년 3월 30일자.

43) 「목경에서 총렬제 공의」, 『신한민보』 1933년 8월 31일자.

44) 백범일지에서부터 거론되는 미주의 ‘임시정부 후원 조직’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규명이 이뤄졌다. 즉 1928년경 ‘임시정부 후원회(The League to Suppor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신한민보 기사 등을 종합해 보면, 공식 명칭이 아니더라도 와히아와 지역을 중심으로(임성우, 안창호 목사 등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후원조직이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다가, 1932년 5월 이들이 와히아와 임시정부후원회(이사장 김기순, 서기 김성옥, 재무 현도명·김려준(김예준)·김태평·김형기·김경옥 등)를 조직하였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하와이애국단’으로 발전해 간 것이다.(김도형, 「하와이 한인의 이봉창 의거 거사자금 후원」, 『이봉창 의거의 기반과 반향 학술회의 발표문』, 백범기념관, 2022.10.12., 60~61쪽).

하는 의원으로서 활동을 개시했다.⁴⁵⁾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재미 한인들은 가열차게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후원했다. 이때 현순은 국내의 한인들의 당면 ‘혁명’은 정치혁명도 산업혁명도 아닌 ‘민족혁명’이라고 규정했다.⁴⁶⁾ 그는 “혁명은 공담허론이 아닌 오직 직접 행동에 있으며, 그 혁명심을 살린 이가 이봉창과 윤봉길”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혁명의 대본영은 임시정부’라고 선언했다.⁴⁷⁾

1932년 1월 8일에 李奉昌 義士는 그 마음의 품은 칼날을 빼어 東京 櫻田門 밖에서 裕仁의 혼을 놀래였으며, 동년 4월 29일에는 尹奉吉 義士가 또한 그 마음에 품은 칼날을 빼어 上海 虹口公園에서 왜적을 작살하여, 절대 전복의 장쾌한 대작성이 우리 3천만 민중의 혁명심을 살리고 또한 중국의 4억만 민중의 혁명심을 살린 것이라 한다.

하와이에 우거하는 6천 동포시여. 우리는 혁명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있는 민족이다. 일본 동안이라도 이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공기 중에서 영도자 노릇도 하며, 교사 노릇도 하며, 목사 노릇도 하며, 실업가 노릇도 하며, 노동자 노릇도 하며, 청년들은 각종 기술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혼자 살겠다는 천비한 생명을 요구하여 혁명사업에 사소한 도움도 바치지 아니하면 더러운 사람의 형상은 살아있으나 깨끗한 한족으로는 죽은 것이다. 3천만 민중으로 같이 살기로 도모하여 죽기로써 기약하면 혁명심이 활발하게 살아나올 것이다. 이 마음으로 혁명의 대본영인 임시정부를 복종하며 후원하면 우리의 대본영의 위신과 위력의 중외에 떨칠 것이니, 우리 민족의 자유를 얻는 유일의 기본이 아닐까 한다. 하와이에 우거하는 6천 동포시여 혁명심을 살리자. 혁명심만 살아나면 왜적을 거꾸러트릴 날이 멀지 않았다.

한편 미주 한인들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지한 인사 등을 통해 일제 압박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일본 외무성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하와이 교민총단 법률고문 R. J 오브라이언이 상해 미국대사관을 통해 프랑스 조계에서 체포된 한인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여러 루트로 중국 내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자 한인들의 동향을 주시하며 경계했다.⁴⁸⁾

1931년 일제의 중국 침략은 역설적으로 미주 한인사회의 임시정부 지원 열기를 고조시켰다.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의거로 재미 한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틀림없었음을 확인하였다. 1933년부터 본격화된 임시정부 인구세 모금과 지지 선언은 재미 한인 단체의 통일운동과 결합되어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모름지기 이봉창은 어느 계열/분파의 독립운동가 아닌 행동하는 열사로 받아들여져 계파를 떠나 추모의 대상이 되었다.⁴⁹⁾

45)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 창당의 영향으로 임시정부의 조직적 위기가 생겨나자 김구는 임시정부에 복귀하여 제29차 임시의정원부터 ‘미령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때 이동녕도 함께 ‘미령 의원’으로서 선출되었는데(『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권, 296쪽), 이는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의 미주 기반과 깊은 연관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김구는 이후 광복 때까지 임시 의정원 ‘미령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46) 박순섭, 「1920~40년대 현순의 재미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6, 2016, 28쪽.

47) 현순, 「혁명심을 살리자」, 『국민보』, 1938.6.1.

48) 《滿洲事変(支那兵ノ滿鉄柳条溝爆破ニ因ル日、支軍衝突關係)》, 第三卷(A.1.1.0), 일본 외교사료관(B02030189600).

IV. 연해주 · 중국 한인사회의 반향

1932년 국제적 현실 속에서 재중 한인과 재소 한인사회의 동향은 매우 엇갈렸다. 특히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한인사회에서 이봉창 의거는 큰 반향을 일으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929년부터 스탈린 정권은 농업집단화를 추구하는 제1차 5개년계획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집단화와 곡물 매수에 대한 부정적 계층으로 소위 토호들이 숙청되고, 이로 인해 연해주 한인사회는 스탈린의 숙청으로 민족지도자들을 잃고, 구심점을 상실하게 되었다.⁵⁰⁾

이봉창 의거가 일어난 1932년은 연해주 한인사회가 크게 위축되던 시기였다. 연해주 당기관지인 『선봉』은 이봉창 의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짧게 보도하였다.⁵¹⁾

일본에서 일본 황제를 암살하려던 운동

동경. 일본 황제 미카도가 신년 영병식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서 암살음모를 행하였다고 ‘신문연합’은 보도하였다. 음모자는 포획되었다.

일본 황제에 대한 암살 음모를 고려사람 리오이유가 행하였다. 그는 황제가 지나가는데 폭탄을 던졌으나 미카도에게 해독이 없었다.

일본 내각은 사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익일 통신에 의하면 사직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윤봉길 의거의 경우 다른 지역 신문 보도와 달리 직접적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군의 상해 침공에 대한 보도가 단편적으로 이뤄질 뿐이었다.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선봉』의 기사가 토호 문제에 집중될 만큼⁵²⁾ 한인사회, 민족운동에 대한 보도는 제한되고 있었다. 다만, 이봉창 의거의 경우 그 대상을 일본 황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보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스탈린의 숙청으로 인해 민족지도자들을 잃고 구심점을 상실하고 있던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이봉창 의거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⁵³⁾

반면 중국에서 이봉창 의거는 한중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의거 직후부터 중국 신문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申報》는 의거 다음날 「韓國志士狙擊日皇未成」, 1월 12일 「韓志士李奉昌略歷」를 보도하여 이봉창의 일생과 그가 품은 독립운동에 대한 심정 등을 보도했다.⁵⁴⁾ 중국 언론은 “그는 24세부터 애국민족주의 사상이 확고했으나, 줄곧 일본인들 속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49) 1944년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총지부 전형균의 경우도 충의열사 3인으로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을 꼽고 있었다. 당시 총지부의 서기는 현순이 맡고 있었다(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총지부 임원 명단(1944.1.2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7권).

50) 오세호, 「1929~1946년 소련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의 정체성과 홍범도 인식」,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2014, 4쪽.

51) 『선봉』, 1932년 1월 14일자.

52) 오세호, 앞의 논문, 4~6쪽.

53) 한인사회에 대한 압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32년에는 삼일절을 앞두고 삼일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봉건적 미신의 잔재라는 비판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선봉』, 1932년 2월 20일자.

54) 石源華, 「《申報》有關韓國獨立運動暨中韓關係史料述評」, 『韓國研究論叢』, 第8集, 復旦大學 韓國研究中心.

은 그를 일본에 귀화한 것이라고 조소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일본인들 속에 있어도 구국 독립정신만은 저버리지 않았다”고 평가하며,⁵⁵⁾ 이봉창을 구국의 영웅으로 평가했다.⁵⁶⁾ 특히 《民國日報》 등은 “불행히 폭탄이 일행을 적중치 못했다”는 논조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외교분쟁화했다. 중국 靑島에서 일본인들은 민국일보사를 불태우고 시위를 벌이며 갈등을 유발하였다. 중국 측을 상대로 갈등을 증폭시킨 일본은 결국 이를 구실 삼으며 상해를 침공하는 빌미로 삼았다.⁵⁷⁾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본진인 중국 교민사회는 이봉창 의거로 고무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정화는 이봉창 의거 직후 상황에 대해, “상해의 일본 교민들이 신문에 몰려가 사옥을 파괴하는 사건이 뒤따랐으나, 우리 한인이 한국과 중국 양 민족의 공통의 적인 일본의 괴수를 저격하려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우리 교민들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은 즉시 호전되었으며, 우리도 중국인 이웃을 대할 때 보다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 양민족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⁵⁸⁾고 회고했다. 이 외에도 많은 한인들에게 이봉창 의거는 다시 한 번 항일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독립당은 ‘李奉昌의 일본황제 저격에 대한 선언’(1932.1.10.)을 통해, “日寇가 저지른 죄악의 모든 책임이 바로 일황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를 제거해야 하며, 이봉창 의거를 부추긴 것은 결국 일본 군벌과 제국주의자들이라 밝혔다. 나아가 이봉창 의거는 개인의 의사나 행동이 아닌 2천 3백만 한인 모두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앞으로 제2, 3의 이봉창이 출현할 것“임을 예고하였고,⁵⁹⁾ 한민애국단의 의거는 4월 29일 윤봉길 의거로 이어졌다.

1932년 10월 11일 김구는 이봉창 순국 소식을 듣고, 이봉창의 약력과 의거의 경위, 그리고 이봉창 의사에 대한 찬사를 담은 ‘東京炸案의 真相’을 발표하였다. 김구의 ‘진상’ 발표는 순국한 이봉창에 대한 예우이자, 다짐이기도 했다. 한민애국단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매년 1월과 10월, 의거일과 순국일에 추모 행사를 가지며, 기념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의거 6주년인 1938년 1월에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위원회 명의의 선언을 발표하였다.⁶⁰⁾ 중일전쟁 이후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이 진전되고, 항일 의식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이봉창과 윤봉길은 의열 투쟁의 상징으로 기념되었다. 나아가 순국지사에 대한 독립운동가들의 예우는 1939년 임시정부의 공식기념일인 ‘殉國先烈 紀念日’ 제정으로 이어졌다.⁶¹⁾

55) 석원화·심민화·패민강(편), 김승일·이은우(역), 『신보-대한민국임시정부 관계기사 선집』, 범우사, 2001, 215쪽.

56) 중국 신문의 보도 양상과 이에 대한 일본 측 대응 등에 대해서는 한시준,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참조.

57) 한시준,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살다 간 지도자 김구』, 역사공간, 2015, 71쪽.

58) 정정화, 『녹두꽃』, 미완, 1987, 82쪽.

5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8, 2008, 37~38쪽.

60) 『白凡金九全集』 제4권, 686쪽.

61)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第65號(1940.2.1)(『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권); 황선익,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光復運動者禮遇와 순국선열 紀念」, 『역사와 교육』 32, 2021 참조.

V. 맺음말

이봉창 의거가 일어난 후 중국 언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⁶²⁾

이봉창 지사의 의거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자극받은 세계 각 약소 민족의 뜻있는 인사들은 민족혁명
명의 뜻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면서 이봉창 지사의 안위를 걱정하는 전보를 다투어 보내오고 있다. 歐
美 각국 인사들은 이번 사건이 일본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예의주시하며 깊은 관심을 표
시하고 있다. …(중략)… 이봉창 지사의 의거는 극히 비밀스러운 조직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한 것으로
한국 민족독립운동의 선구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봉창 지사 동지들의 계속적인 분투와 희생이 앞으
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밑줄은 필자 강조)

위 기사의 상황 판단과 예견대로 일제는 한인들에 대한 탄압과 압박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독립운동의 동력은 ‘단속’되지 않고 윤봉길 의거로 이어졌다. 결국 이봉창 의거에 대한 일제 대응은 실패로 돌아갔다. 반면 이봉창·윤봉길 양 의거로 한인애국단과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국외 한인의 믿음은 굳건해졌다.

의거 직후 ‘狙擊日皇不中’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다소 실망했던 김구는 다음과 같은 동지들의 말에 이봉창 의거를 다시 봤음을 회고했다. 일황이 즉사한 것만은 못하나, 정신적으로는 우리 한인이 일본의 신성불가침인 천황을 죽였으며, 이것은 한인이 일본에 동화되지 않은 것을 세계 만방에 확실히 보여주는 증명이니 족히 성공으로 칠 수 있다.⁶³⁾

이봉창 의거는 제국주의 심장 도쿄에서 일왕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1930년대 독립운동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 해외 한인사회와의 호흡 속에서 이뤄진 쾌거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1937년 5월 장인환 의사 서거 7년을 맞은 그때, 홍언은 스티븐스 처단이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했다. 첫째 ‘발로 차면 노여워할 줄 모르고 땀 흘릴 줄 알았더니 그 용감을 공경’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인으로 하여금 재외 한인의 배일사상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알게 하였다. 셋째 우리 재외 한인 사회 각 단체의 합동에 앞길을 열어주었다.⁶⁴⁾

장인환·전명운 의거와 시기와 대상은 다르지만 이봉창 의거도 같은 맥락의 성과를 거뒀다 할 것이다. 즉 한인의 용감함과, 끊이지 않는 항일 열기, 그리고 이를 위해 통합을 불사하는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였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大本營으로 자리잡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

62) 김구, 도진순 탈초·교감, 앞의 책, 403쪽

63) 『정본 백범일지』, 403쪽.

64) 『신한민보』, 1937년 5월 27일자. “장인환·전명운 양 의사가 공적 스티븐슨을 포격하고 일년 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이도 히로부미를 포격하여 세계를 진동하였고,(중략) 최근에 와서 이봉창이 애진문사쿠라다문에서 왜놈의 존왕주의의 신성을 깨트렸고, 윤봉길은 홍구공원에서 십만 왜병을 거느린 백천(시라가와) 등 7개 적괴를 작격하였다” 특히 홍언은 이봉창, 윤봉길의거를 장인환/전명운 의거에서부터 맥락화하였다. 이는 재미한인들의 의열 투쟁에 대한 나름의 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 구, 도진순 탈초·교감, 『정본 백범일지』, 2016.
- 조동걸, 「한인애국단의 의거」, 『독립운동사』 7권(의열투쟁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 이현희, 『李奉昌의사의 항일투쟁』, 국학자료원, 1997.
- 장석홍, 『진실과 왜곡』,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2006.
- 한시준,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근현대사연구』 36, 2006.
-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이봉창의사 재판관련 자료집』, 단국대 출판부, 2004.
- 이봉창의사장학회, 『이봉창 의사와 한국독립운동』,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2.
- 김도형, 『일왕을 겨누는 독립투사 이봉창 의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 배경식, 『식민지청년 이봉창의 고백』, 휴머니스트, 2015.
- 김도형, 『미주 한인사회의 한국독립운동』, 역사공간, 2022.
- 박순섭, 「1920~40년대 현순의 재미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6, 2016.

* 이 논문은 2023년 2월 28일에 투고되어,
2023년 3월 22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4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Reaction of Lee Bong-chang's Struggle for Independence on the Korean Community Abroad

Hwang, Sunik*

In 1932, Lee Bong-chang's struggle for independence in Tokyo sounded the alarm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and received significant international attention. His struggle, which took place in Tokyo, the heart of imperialism, and targeted the Emperor of Japan, received significant international attention. As a result, the Japanese cabinet had to resign.

At the time of Lee Bong-chang's struggl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in a state of stagnation due to internal problems. However, thanks to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Korean in Shanghai and the Korean society in America, the Provisional Government's determination to fight revived, leading to the achievement of Lee Bong-chang's struggle.

Meanwhile, the Korean society in America was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due to internal confusion and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Despite this, Korean in America hoped for the emergence of patriots like Chang In-hwan and An Jung-geun. The struggle of Lee Bong-chang at that time quenched the thirst of Korean Americans for independence. Subsequently, when the struggle of Yoon Bong-gil's occurred, Korean Americans strengthened their support for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hile reigniting their desire for independence.

When Lee Bong-chang died a martyr in October 1932, the atmosphere of mourning spread not only among the Provisional Government's people but also throughout the Korean community in American. Two months later, when Yoon Bong-gil died a martyr, a joint memorial service was held for both of them.

The deaths of Lee Bong-chang and Yoon Bong-gil paradoxically brought Korean in Americans together and became a turning point in firmly supporting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struggle of Lee Bong-chang, which opened the door to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in the 1930s, is especially meaningful in that it was achieved in cooperation with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nd became a new watershed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Keyword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Korean community in America, Yoon Bong-gil, Jang In-hwan, Kim-Koo

* Associate Professor, Kookmin University